

# 새로운 가치창조의 시대로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창가학회) 회장

2010년 1월 26일

**위기를 자량(資糧)으로 시대를 변혁하는 흐름을!**

창가학회(創價學會) 창립 80주년, 국제창가학회(SGI) 발족 35주년을 기념해,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에 따른 희생자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를 잃고, 피해를 본 분에게 SGI를 대표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대한 피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국제사회가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깊이 기원드립니다.

**어려운 사업에는 신념과 끈기가 반드시 필요**

그런데 1년 전에 세계의 주시를 받으며 활기차게 등장한 오바마 정권은 사상 최초 아프리카계 미국 대통령 탄생이라는 극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목표로 내건 '체인지(변혁)'에 전 세계인의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때마침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불어 닥친 세계동시불황이 지구사회 전체를 휩쓸던 상태였으므로, 근원지인 미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혁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달에 성립한 '미국재생 재투자법'은 에너지 대책 등을 축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주목받았지만, 위기의 뿌리가 깊어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듯합니다.

세계경제 전체를 보더라도 각국의 정책적 대응 덕분에 일단은 금융위기가 잠잠해진 듯하지만, 그만큼 재정적자는 늘고, 악화된 고용정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80년 전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혼란을 거듭하던 경기의 '더블딤(이중침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이, 근대 과학기술 문명의 악마적 소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둘러싼 상황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 프라하 연설에서 유일한 핵 사용국이 지녀야 할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겠다는 발언은, 벽에 부딪친 핵군축과 관련된 움직임에 획기적인 희망의 빛을 비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스승 도다 조세이(戸田城聖) 제2대 회장(1900 ~1958)의 뜻을 이어받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폐절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정치 지도자를 비롯해 식자들과 나누는 대담에서도 핵폐절을 계속 강조하던 저도, 그런 흐름이 정착되고 가속도가 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해 9월 8일, 스승이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 날에 맞춰 '핵무기 폐절을 향한 민중의 연대를'이라는 제목으로 기념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처음부터 '묵시록적 무기'라고 일컬었고, 인류사의 업(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감축하고 폐절하는 어려운 사업이 하루아침에 진척될 리 없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마하트마 간디, 마틴루터 킹 등이 실천한 비폭력 정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들이 가르친 사랑, 즉 '인류의 진보'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듯이 유연하면서도 끈기 있는 추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확실히 간디가 한 말처럼 '좋은 일은 달팽이와 같은 속도로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 이상(理想)을 굳게 지키며 점진주의로 전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여러 도전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정책 결정을 단기간이나 단락적(短絡的)으로 판단하여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실망하는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상(理想)을 굳

게 지키며 현실에서 생기는 과제를 하나하나 극복하려는 노력을, 국제사회가 지원하며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번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점은, 현대문명이 다다른 위상(位相)과 좋은 현대인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데클러네이션( 쇠잔)의 시운(時運) 다시 말해 대략적으로 폐시미즘(비관주의) 그리고 니힐리즘(허무주의)이라고 총칭하는 시대정신의 실상에 관해서입니다.

허무주의라고 하면, 이른바 ‘신(神)은 죽었다’<sup>1</sup>라는 말을 계기로 생긴 유럽적 사조(思潮)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양에도 허무주의의 계보는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여기에서는 글로벌리즘의 모순이 드러난 황량한 풍경에 독기처럼 피어오르는 문명의 병리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경향이 현저한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어둡고 비관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일본경제가 예전처럼 ‘상승세가 이어지는’ 성장은 바랄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저류에는 웬지 모르게 쇠잔한 느낌과 함께 지난 세기의 대공황 때 있었던 사회주의라는 옵션(선택항목)마저 없는 비관적이고 허무적인 심상(心象)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블 시대의 들뜬 풍조나 소란함과 비교하면 언뜻 보기에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시류(時流)에 따라 어느 한쪽이 얼굴을 내미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프랑스 기예(氣銳)의 논객 엠마누엘 토드 씨는 금융주도의 글로벌리즘을 평가하며 “사회적인 모든 속박에서 ‘개인을 해방하기’를 바라며 화폐와 그 화폐를 모으는 일을 승양하고, 그 속에서 안전을 추구하며 두려워서 벌벌 떠는 소인배를 만드는 데 성공했을 뿐이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이 ‘소인배’의 얼굴을 앞면에서 보면 ‘멤머니즘’(배금주의)이고, 뒷면에서 보면 ‘허무주의’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토드 씨에 따르면 양쪽 모두 금전을 모든 척도로 삼고 다른 가치기준을 지니지 않는 ‘가치 공

---

### <sup>1</sup> 신은 죽었다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플라톤 이후의 철학사상, 특히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고 많은 도덕적 가치가 많이 무너진 위기 상황을 “신은 죽었다.”고 일컬었다.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도 ‘죄와 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파를 살해한 라스콜리니코프의 모습을 통해 문명론적 테마를 들어 신의 죽음이 도덕을 부정해 니힐리즘(허무주의)의 온상이 된다고 묘사했다.

위(空位) 시대'의 산물이며, 극과 극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근대문명이 거의 필연적으로 낳은 '쌍둥이'입니다.

## 세계동시불황을 교훈 삼아 의식 전환이 필요

### 경제적 능력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폐해

글로벌리즘의 플러스적인 측면은 물론 빈곤이나 '격차 사회'를 비롯한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논할 경우에도 대부분이 이 가치기준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장래가 불안하고, 살벌하며 황량하고 공허한 울림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격차 확대 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게다가 이를 계기로 범죄에 빠지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사태를 결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태껏 이 점은 정치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인간사회를 성립시키는 정의와 공평성이라는 에토스(도덕적 기풍)를 담보로 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이고 제도적인 안전책 정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도 내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외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을 정비하는 일은 사태에 대한 대증요법(對症療法)은 될지언정 근본요법(根本療法)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증요법'을 밑에서 떠받치고,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정신적인 측면의 뒷받침 즉 가치관을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가치기준을 금전이라든지 이익을 얼마나 많이 손에 넣을 수 있느냐는 경제적 능력에 전적으로 내맡기는 삶의 방식, 즉 근대문명의 트렌드(흐름)는 소련형 사회주의의 흥망이라는 장대한 시련을 뚫고 나온 다음에도 좀처럼 궤도를 수정할 수 없는 듯합니다.

그것은 욕망의 무한확대를 비롯해 무한해방을 용인하는 근대문명과 근대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경종을 울린 지도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일어난 세계 동시불황을 쓰디쓴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병리를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기준을 전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두는 일은 토드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인

배'의 가치관이지만, 그것보다는 가치관의 공위이며 결여라고 간파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외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으로 한정시킨다면, 현대 선진국 사회는 옛날 왕후귀족을 능가할 만한 생활수준을 지닌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왜 비관주의와 허무주의라는 독기가 피어오르는지를 물어 야 합니다.

### 종교의 핸들과 브레이크 역할

그런데 과학기술이 근대문명 발전에 가장 큰 추진력과 구동력(驅動力)이 되었다는 점은 두말할 나 위도 없습니다.

그런 과학자라는 위치에서 종교 특히 불교와 일치하는 점을 계속 연구한 이즈미 요시하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욕망이라는 액셀로 지능이라는 엔진을 움직이고, 종교라는 핸들과 브레이크로 안정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이 비유를 빌리자면, 근대문명 특히 근대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이를테면 막스 베버가 분석했듯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브레이크와 핸들을 작동함으로써 간신히 욕망이 제어되고 안정된 인간생활을 보장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을 위해 근면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무엇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가'라는 가치관에서 나온 물음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의 정신과 생활이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만일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베버가 말한 '마음이 없는 향락인'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탄받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등은 그 말기 증상이라 해도 좋습니다. 또 욕망이나 지능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용버블의 배경에는 투기성을 지상의 목표로 삼은 디리버티브(금융파생상품)시장 확대 등이 존재하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최첨단의 금융공학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금융시장을 마치 카지노처럼 만드는 데 열중한 사람들의 뇌리에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라는 물음이 있었을까요.

특히 지능 즉 과학기술이라는 엔진의 폭주는 방치해두면 인류의 운명까지 관여하게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와 크게 흔들리던 역사의 진보라는 관념을 부수고 '히로시마'의 비극을 연출한 핵기술의 악몽은 끝없는 욕망(불법<佛法>에서 말하면 한없이 심해지는 수라의 생명)과 첨단기술이 하나가 되어 고삐가 풀리면 얼마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지를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조셉 로트블랫 박사가 원폭투하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심정을 저와 엮은 대담집에서 '절망'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했듯이, 원폭투하는 인류의 앞날에 가치관 붕괴와 허무주의라는 암운을 무겁게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허무주의라는 관점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은 일종의 돌출된 생명공학, 이를테면 생식계열 유전자 조작<sup>2</sup> 등이 도를 넘어 고삐가 풀릴 위험성입니다.

그것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씨의 저서 《인간의 종말》<역주1>이나 빌 맥키벤 씨의 저서 《인간의 종언(終焉)》<역주2>이 경고하듯이, 인류가 수천년 동안 축적한 도덕과 종교를 비롯해 문화와 예술 등 정신적 유산을 뿌리째 뽑아 무가치하게 만드는 '신인류'(포스트휴먼) 시대가 공상과학소설(SF)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은 인간의 이기주의를 교묘하게 농락하며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할 두려움마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기술이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면, 생식계열 유전자 조작 등은 '인간'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주의는 어느 때는 거리낌없이 우쭐거리고, 어느 때는 시치미를 떼며 양쪽 주위를 끊임없이 맴돕니다.

가치관이 결여된 과학기술은 통제가 되지 않아 인간사회를 근거에서 위협하는 흥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대화가 귀환불능지점을 우려할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마르틴 하이데거가 논한 "불안한 점은 기술화 자체라기보다는 기술화에 대한 우리 측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라는

---

## <sup>2</sup> 생식계열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에는 유전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신체의 특정 부위에 수정한 유전자를 삽입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계열 유전자 조작'이 있다. 이중 후자는 생식세포(난자나 정자) 또는 초기 수정란을 변형해,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윤리적 관점 등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술론이 주목을 끄는 것도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 가치감정의 결핍이 초래하는 것

가치관의 '공위'라고 하면, 일찍이 시몬느 베유가 "20세기 전반의 본질적인 특성은 가치 개념이 희박해지고 아니 대부분 소실된 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전 발레리가 지적했듯이 특히 선(善)과 관계된 말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덕(德), 고귀함, 명예, 성실함, 관대함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거나 위선적인 뜻을 지니기에 이르렀습니다. 말은 이미 인간의 특성을 정당하게 찬탄하는 데 아무런 수단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베유는 이것을 '가치감정 결핍증'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1월 제언에서 언급한 가브리엘 마르셀을 비롯해 뛰어난 사상가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는 법입니다.

베유의 말은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날의 세상에 적용해도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 병이 훨씬 더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병리의 집약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의 형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량살상 무기든 테러든 현대 전쟁을 특징짓는 점은 '무차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차별성'은 개개인의 인격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선악(善惡)이라는 가치감정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 참된 종교에는 허무주의를 부수고 정신을 소생시키는 근원적 힘이

#### '창가'의 운동에 보내는 기대

'창가(創價)'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치창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창조가 허무주의와 가치공위 시대에 썩기를 막고, 근대문명의 폭주에 핸들과 브레이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인류사적 도전이라고 강하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열어붙은 허무주의의 대지를 깨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선의 가치' '선한 말'을 일구어, '변용'(악)에 물들지 말고 '단련'(선)의 인생을 살자고 인간정신을 소생시키는, 착실하고 확고한 민중각성운동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 평생사업인 소설 《인간혁명(人間革命)》의 주제로 삼은, '한 사람'의 숙명전환(宿命轉換)을 '인류'의 숙명전환으로 연동시키는 가치관의 대전환운동입니다.

기쁘게도 많은 분이 이런 창가 운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잡지에 공감과 격려의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시대 풍조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확고한 철학과 이념을 기조로 한 세이교(聖敎)신문의 논조는 지금 시대에 가장 요청되는 점입니다.” “세이교신문은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평화와 문화 그리고 교육이라는 관점을 관철했기에 독자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겠지요.” “세계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격려'를 보내는 신문입니다.”

“톨스토이를 비롯해 괴테와 위고 등은 인류의 정신사에 남을 '거인'입니다. 활자 문화의 쇠퇴가 우려되는 지금 시대에 '거인들의 말'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매체는 세이교신문밖에 없을 것입니다.” 등 비관주의와 허무주의가 만연한 요즘 같은 짝 막힌 상황을 돌파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우인 중에 지지난해에 돌아가신 작가 친기즈 아이트마토프(1920~2008) 씨는 뛰어난 문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감각으로 이 점을 포착하셨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의 산 증인이었던 아이트마토프 씨는, 옛 소련 시대는 권력의 '검열(檢閱)'로 고통받았지만, 소련이 붕괴된 후에는 '상업주의'라는 더 상대하기 어려운 '검열'이 나타났음을 우려하며 한가지 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저널리스트가 전 재산을 털어 양질의 신문을 발간했는데, 악전고투 끝에 10호로 폐간되었습니다. 그때 그 저널리스트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신문에는 흥미 본위의 기사도 없는데다 소문을 재미있게 꾸며낸 내용도 없다. 살인사건도 없지 않은가. 누가 그런 신문을 사 보겠나?”

아이트마토프 씨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대가 창가학회의 기관지 '세이교신문'입니다. 똑같이 흥미 본위나 날조된 기사도 전혀 없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문화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발간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읽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미래의 인(因)이

### 불법이 지향하는 세계관과 우주관

어쨌든 우리의 변함없는 신념은 종교가 시대를 열고 가치를 창조하는 도약대가 되며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 지견(知見)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도량 넓게 감싸며, 인류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첨단기술의 폭주를 제어하는 ‘핸들’ ‘브레이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의 힘이 요청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를 모토로 종교적 기적과 같은 부류를 엄정히 거부하던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강조한 ‘우주적 종교’ ‘우주적 종교감각’에서 느껴지는 순수하고 조화로운 코스모스 감각의 전개입니다.

그것은 내가 토인비 박사와 서로 그 존재를 깊이 수긍했던 ‘궁극적인 정신적 실재’와도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 감득하는 점은 근대과학을 성립시킨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마저 상대화하고 포괄하는, 잘 연마된 일종의 감수성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직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감수성은 결코 거대한 인격만이 지니는 고유한 능력은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잡다한 일이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소란한 정보화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에게 갖춰졌고 참으로 실재하며, 진정으로 살아 있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존재의 심음(心音)을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지마 쇼조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곳만이 진정한 현실이다.”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 마음이 폭삭 늙었다면 아무리 젊어도 노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지마 씨는 풍요로움이나 행복을 ‘외부’에서만 찾는 현대문명에 관해, 진정한 풍요로움은 “자기 안에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깨닫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곳’이라는 말은 절묘한 표현이며, 참으로 ‘발밑을 파라, 그곳에 샘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원함은 지금 이 순간이다. 흥미를 끄는 일은 오직 하나,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은 또 불교의 사교방식 즉 불교적 세계관, 우주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는 상세하게

논하지 않겠지만, ‘인과구시(因果俱時)’ ‘구원즉말법(久遠卽末法)’ ‘찰나성도(刹那成道) 즉신성불(卽身成佛)<sup>3</sup>을 비롯한 대승불교의 기본개념은 물리적 시간이나 역사적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이 아니며 근대과학이 기반으로 삼은 시간이나 공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축이라는 가설 위에 성립하는 ‘확실’한 과거나 미래는 니체가 ‘삶에 대한 역사의 공과(功過)’에서 고발했듯이, 사실(史實)이지만 어딘지 멀게 느껴지고 삶에 대한 실재성(實在性)이라는 점에서 불충분하며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불전(佛典)에는 “이(已)란 과거이며 내(來)란 미래이니라. 이래(已來)의 말 속에 현재는 있느니라.”(어서 753쪽)고 설합니다.

현재는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듯이 보이나 그런 현재의 한 순간에 무한한 과거와 영겁의 미래를 감싸 안는 참된 실재성이 있습니다. 그런 실재성이 바로 과거로부터 받는 속박을 상대하며 미래의 희망을 끌어당기는 생명의 저력이 나오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곳’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생활태도의 중심축이고, 인간으로서 모든 삶을 영위하는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 점을 벗어나 가설의 세계로 축을 옮기면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첨단기술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버블이나 공황에 우왕좌왕하고 맙니다. 현실이 가상현실에 침식되고 맙니다. 우리 종교인은 그 축을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고, 폭주하는 근대문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 문명의 궤도를 바로잡고, 인간성을 연마하는 원동력은 ‘깊음에 따르는 마음’ ‘강한 마음’에

### 부단한 정신투쟁이 가치창조의 원천

<sup>3</sup> 인과구시, 구원즉말법, 찰나성도·즉신성불

원인과 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결과가 동시에 구비된 상태를 ‘인과구시(因果俱時)’라고 일컬으며, 구원원초(久遠元初)와 말법의 때가 상즉(相卽)해서 불이(不二)한 상태를 ‘구원즉말법(久遠卽末法)’이라고 일컫는다. ‘찰나성도(刹那成道)’는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동의어이고, 중생이 묘법(妙法)의 공력(功力)으로 그 몸 그대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한 법리다. 법화경 이전의 경전에서는 역겁수행(歷劫修行, 오랜 수행)을 거쳐야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다.

이른바 불법에서 설하는 보살도(菩薩道)라는 사회적인 실천도 우주만큼 장대한 생명관을 바탕으로 함과 동시에, 오늘보다 내일을 향해 '선(善)하게 사는' 일에 여념이 없는 과감한 행동을 뜻하겠지요.

아인슈타인이 '우주적 종교' '우주적 종교감각'을 앞장서서 외치며 '우주적 인간' '우주적 양심'을 명심하고, 평화운동에 몸을 던졌듯이 과감하게 홀로 서서 시대변혁에 도전하는 개척자는 진정한 현실인 '지금 이곳' '지금 이 순간'을 주시합니다. 이 점에 집중하고 맥동하며 가치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충동에 떠밀리듯, 삼세시방(三世十方)을 포괄한 풍요로운 현실의 숭한 선택항목 중에서 '선의 가치' '선한 말'을 세심하고 주의 깊게, 어느 때는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아니 만들어 냅니다.

학문에 왕도(王道)가 없듯이 '선'의 길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현실에 몸을 두고, 굳이 고난에 도전하며 부단한 정신투쟁이라는 용광로에서 자기를 철저히 단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에 '선'을 성취하는 곧은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마르셀이 말했듯이 "상황이라는 특수성과 법이라는 보편성 사이에는 늘 반드시 긴장이 존재하고" "이런 긴장이 바로 가치를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부단한 정신투쟁의 용광로'와 '긴장'은 동의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불전에서 설하는 "얕음은 쉽고 깊음은 어렵다." "얕음을 떠나서 깊음에 따르는 장부(丈夫)의 마음이니라."(어서 310쪽)는 금언이 불후한 실천규범으로서 빛을 발합니다.

용광로나 긴장을 그르치지 않고 헤쳐나가려면, 이 '깊음에 따르는 마음'과 더불어 "월월(月月) 일일(日日) 강성해지시라."(어서 1190쪽)는 금언처럼 '강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는 하루하루, 자칫하면 '안이함'으로 흐르기 쉬운 인간의 나약함에서 정반대로 방향을 틀어 이상(理想)을 추구하고 자기를 단련하며 향상하려는 '의욕'이 있습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며 현실은 변화무쌍합니다. "사별삼일 즉당괄목상대(士別三日 卽當刮目相對,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마땅히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성장하는 사람은 사흘 정도 지나면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법입니다.

'깊음에 따르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대응하며 항상 가치를 창조하는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희망, 용기, 정진, 우의, 친절 등 '선한 말'은 상황을 타파하려고 감연히 도전하는 사람의 자질에 정말 잘 어울리는 '비단옷'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버드대학교 강연(1991년 9월, '소프트파워 시대와 철학')에서 양심이 내발적으로 발현하려면 '고뇌나 갈등, 망설임, 숙려(熟慮), 결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기복신앙'은 필연적으로 '종교 아편론'이라는 함정에 빠져 고난으로 가득 찬 시대를 변혁하는 주체자로서 나아가야 할 길, 즉 대승불교에서 설하는 보살도를 답파(踏破)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그런 '부단한 정신투쟁의 용광로'가 지닌 실상을 '역사적 삶'으로서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역사결정론을 신봉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삶이, 따라서 역사적 삶까지도 순수한 순간들로 구성되며 그 한순간 한순간은 이전의 순간과 무관하기에, 현실은 매 순간마다 망설이고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다양한 가능성 중에 어떤 것으로 결정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믿는다. 이 철학적인 망설임이 모든 삶에 분명한 불안과 전율을 부여한다."(《대중의 반역》)

이 '철학적인 망설임'은 우유부단함과 비슷하지만 다르고, 고정관념을 배제하며 '분명한 불안과 전율'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선'을 찾아내는 힘의 원천을 뜻합니다.

초전법륜(初轉法輪) 때, 범천(梵天)이 석존에게 설법을 권청(勸請)한 설화가 떠오릅니다. 석존이 성도(成道)하고 나서도 깨달음이 매우 깊고 미묘하며 난해해 설법을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망설이자, 범천이 나타나 괴로움에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법을 권청함으로써 초전법륜이 이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르테가가 말하는 '철학적 망설임'은 석존이 주저하고 망설인 일과 어떤 면에서는 공명(共鳴)할 것입니다.

그 망설임은 가치를 창조하는 원천이기에 센 활시위를 한껏 당기는 근력과 비슷하기도 하며, 활을 힘껏 당겨 쏜 화살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도 뚫고 '선'에 적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명심한 사람은 순간순간 유연하고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딜레마를 극복하며, 마음을 정하고 '선의 가치' '선한 말'을 하나 또 하나 선택할 것입니다.

**타자성(他者性)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가 선(善)의 가치를 복권시키는 길**

## 위고가 제기한 정의를 둘러싼 대화

저는 그런 과정을 일찍이 어느 장편시(청년보'靑年譜')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철학과 사상 속에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그대 자신의/ 건전한 혁명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듯 '선'을 추구하는 선택과 결단은 사람과 경우에 따라 제각각이고, 마르셀이 말하는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깊음에 따르는 마음' '강한 마음'은 '지금 이곳' '지금 이 순간'에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사명을 관철하는 힘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젊은 시절부터 애독한 '레미제라블'의 첫머리에 '정의의 사도' 미리엘 주교와 죽음을 앞둔 늙은 자코뱅 당원(과격한 혁명주의자)이 '정의'를 둘러싸고 불꽃 튀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톨릭의 정의인가 아니면 프랑스혁명의 정의인가. 한쪽이 "단두대를 향해 박수를 친 마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다그치면, 즉시 다른 한쪽이 "그럼 신교 박해에 관한 찬가를 읊은 보쉬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응수하며 격렬하게 싸웁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위고가 역사적 사실을 빌려 표현한 '자기 안의 대결' '자기 안의 대화'(고뇌, 갈등, 망설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위고는 어느 한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물음은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든 난문(難問) 중의 난문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점은 '문답무용(問答無用)'이라는 폭력의 유혹에 저항하며 마지막까지 '철학적 망설임' '긴장' '부단한 정신투쟁의 용광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곳에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단련의 장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디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전제가 '타자(他者)'라는 존재입니다. 즉 참을성 있게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좋든 싫든 부각되는 문제는 바로 '타자'와 마주보며 대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르테가는 '타자'와 공존하는 일이 '야만'과 결별하는 '문명'의 절대요건이라고 논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자성(他者性)의 존중' '타자성의 습관화'는 저 얼어붙은 옛 소련의 정치문화에 언론과 대화의 힘을 극적으로 부활시킨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함께 엮은 대담집(《20세기 정신의 교훈》)에서 기탄없이 대화를 나눈 부분입니다.

앞서 허무주의는 '개개인의 인격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선악이라는 가치감정을 거부한다'고 언급 했는데, 그런 뜻에서도 '타자' '타자성' 부활이 가치감정 결핍증 시대를 개척하고, '선의 가치' '선한 말'을 복권시키는 곧은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월월 일일 강성해지시라."는 금언은 그런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힘든 작업을 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5년까지 명확한 절차를 밟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폐절 정상회담' 개최를

이어서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공생의 21세기'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로 확산된 경제위기는 많은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덧붙여 경제위기로 세계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가 빈곤이나 환경을 비롯한 지구적 문제들에 임하려는 국제협력을 망설이게 하거나 후퇴시키는 상황을 초래할까 우려됩니다.

어떤 한 위기가 비관주의를 낳고, 그 비관주의가 더한 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은 어떻게 해서든 단절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2013년 이후 온실효과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전혀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른다면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진하는 나무 심기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74억 그루를 심었습니다. 실로 초등학생부터 한 나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이 참가해서 전 세계인인 한 사람당 한 그루씩을 심은 셈이 됩니다.

그 밖에도 UNEP 등이 2008년에 요구한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후중립네트워킹'이 확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업과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대학까지 참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간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는 한편에서는 새로운 각도의 국제협력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의 자발성을 원동력으로 하는 접근법으로 계속 현실적인 벽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와, 빈곤과 기아로 허덕이는 인구를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sup>4</sup>에 관한 특별정상회의 등 중요한 회의가 많아 지구적 문제에서 활로를 찾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고비를 맞는 해입니다.

아무리 험준한 산이라도 정상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설령 앞길에 단애절벽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체념하지 않고 길을 찾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닥친 위기가 시대를 변혁할 수 있는 최대 기회라고 포착해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는 '발상력'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80년 전, 우리 창가학회는 대공황으로 세계가 흔들리고 혼미한 어둠이 깊어가는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창립에 즈음해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초대 회장(1871~1944)은 '의타적(依他的)인 생활'과 '독립적인 생활'에서 '공헌하는 생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창했습니다. 즉 주위 환경이나 시대상황에 번롱되는 삶의 방식도 아니고, 자기를 지킬 힘은 있어도 타자의 불행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불전에서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어서 1598쪽)고 설하듯이, 사람들을 위해 힘쓰며 자기를 빛내는 삶의 방식을 사회에 넓히는 행동이 바로 혼미한 어둠을 걷어내는 원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마키구치 회장의 정신을 이어받은 도다 제2대 회장도 "세계에서도 국가에서도 개인에게서도 '비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신념으로 생명존엄 사상을 근본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민중의 연대를 구축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생각하건대 현대에 직면한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이렇듯 인류와 전 지구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시좌(視座)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방관자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당사자 의식을 지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을 정하고, 시대를 변혁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발능동적으로 공헌하는 삶의 방식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대정신으로 고양하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

#### <sup>4</sup> 밀레니엄 개발목표

유엔이 2000년 9월 채택한 '유엔밀레니엄선언'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말한다. 2015년까지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를 비롯해 초등교육 완전보급, 남녀평등 촉진과 여권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등 8개 분야 18개 항목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가장 극심하게 타자가 결여된 형태로 인류의 생존권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핵무기 문제와 많은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빈곤 등 '지구사회의 폐단'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일을 인류사를 전환하는 급소라고 자리매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 핵을 용인하는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

먼저 핵무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제언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핵폐절을 위해 군축을 추진하고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으로 이행(移行)해야 한다는 등 다섯 항목을 제안하고, 오랜 신조로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핵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싸워야 할 상대는 핵무기도, 핵보유국도, 핵개발국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대결하고 극복해야 할 상대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섬멸하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핵무기를 용인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핵무기를 용인하는 사상'을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삼단뛰기처럼 세 단계를 거쳐 확실한 핵폐절의 조류를 만들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1단계는 NPT체제를 근간으로 '핵무기 비사용'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확대해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제도적 토대를 만든다.

제2단계는 추가적으로 '핵무기 사용과 그 위협'을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전쟁범죄로 분류해 핵무기는 명실 공히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 명확히 규정한다.

제3단계는 유엔헌장을 바탕으로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연계해 핵무기 전폐를 추진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 발판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코 불가능한 도전은 아닙니다.

저는 먼저 5월에 열리는 NPT 재검토회의에서 기선을 잡고 향후 5년간 온 힘을 다해 이 세 단계에 도전해서,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2015년에 핵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의의 깊은 '핵폐절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개최하도록 제안합니다.



**핵 보유국은 위협을 해소하고, 서로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에 관한 인식을 전환해야**

### **NPT가 발효된 지 40주년**

제1단계 도전은 제도면에서 '핵무기 비사용' 영역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핵무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핵지대를 설치하는 지역적인 접근법으로 계속 도전했습니다.

중남미를 비롯한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에 이어 지난해에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지역이 핵무기 배제를 결정하기에 이른 의의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전문(前文)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피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NPT가 올해로 발효 40주년을 맞는데, 핵보유국이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디 NPT는 핵보유를 항구적으로 용인하는 조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핵역지정책을 펴는 핵보유국의 자세가 수직적 확산(핵무기 개발경쟁)과 수평적 확산(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나라의 증가)을 초래해 NPT의 토대를 뒤흔든 현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핵보유국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상을 공유하고, 서로 '위협'하며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핵역지론의 주술을 풀어서, 함께 위협을 감축하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전환에 착수해 '안전과 안심의 동심원(同心圓)'을 전 세계에 확대하는 접근방식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금석으로서 핵보유국이 5월에 열리는 NPT 재검토회의에서 다음 세 항목을 서약하고 2015년까지 실현하기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 ① 핵보유국이 NPT에 가맹하고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는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合意)로 체결한다.
- ② 핵보유국은 '핵무기 상호비사용'에 관해 협의하고 조약을 체결한다.

③ 비핵지대로 설정되지 않은 지역은 그 전 단계로서 '핵비사용선언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이 세 항목 중에서 ②와 ③은 결코 쉽지 않은 관문임을 잘 알고 있지만, 당분간은 핵을 보유한 상태로도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②에서 언급한 '핵무기 상호비사용'에 관해 미국과 러시아만이라도 잠정적으로 협정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시대에 한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맹국 간의 관계를 포함해 상정(想定)되는 위협을 대폭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생겨, 국외 핵탄두 배치와 미사일 방위계획을 재검토하기에 이르고, 게다가 '핵우산'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하는 '국제핵비확산군축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도 있듯이, '핵우산'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도 바야흐로 전통적인 핵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핵비사용선언지역' 제도를 구축

또 ③에서 언급한 '핵비사용선언지역'은 세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핵테러 방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주안점은 미국이 냉전 후에 옛 소련 국가들과 추진한 협력적 위협 감축<sup>5</sup>처럼 핵보유국이나 '핵우산'에 의존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위협과 위협이 서로 끊임없이 견제하는 '공포의 균형'에서 벗어나, 각국이 협력해 위협을 해소하는 흐름을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행 NPT에는 함께 위협을 감축하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니다.

---

#### <sup>5</sup> 협력적 위협 감축

1991년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산방지나 위협 감축을 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제국이 추진한 정책이다. 러시아를 비롯해 옛 소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핵무기해체 자금과 기술협력 외에 옛 군사시설에 종사한 과학자나 노동자를 위한 기금 등을 조성했다.

만약 각 지역에서 협의가 활발해지면, 제도 밖에서 점점 더 고립되느니 차라리 제도에 참여해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환경이 조성되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각지에서 '안전과 안심의 동심원'이 확대되면 '핵우산'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물론 북한과 이란 그리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형태로 전 세계를 비핵화하는 브레이크스루(변혁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핵비사용선언지역'을 제정하는 데에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핵테러방지조약, 핵물질방호조약, 생물무기금지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 등은 지역 내 국가들이 비준해야 할 조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래 무기용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컷오프조약)도 추가해야 하겠지요.

일찍이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1917 ~1963)은 "단 하나로 평화를 간단히 개척할 수 있는 열쇠는 없습니다. 게다가 한두 나라의 세력으로 채택된, 마력을 지닌 아주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많은 나라가 협력해 이끌어내야 하며, 그것은 많은 조처를 거듭 강구해야 비로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제언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당사국이 동북아시아에 '핵비사용선언지역'을 설치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포함한 지역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장기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중동과 남아시아 등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구축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을 전쟁범죄로 분류

### '사용금지'를 전면금지하는 쐐기로

제2단계 도전은 핵 사용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는 규범을 세우는 일입니다.

대량살상무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생화학무기 분야에서 개발과 제조를 비롯해 보유와 저장 그리고 이전과 취득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성립시켰습니다.

1925년 제네바의정서에서 규정한 '사용금지'가 전면금지에 이르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은 독가스를 무기로 사용해 많은 희생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을 반성하는 뜻에서 체결했

으며, 의정서에서는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비난하는 국제여론을 수용해 “모든 국가의 양심과 행동을 동등하게 구속하는 국제법의 일부로서 널리 수락한다.”고 사용금지를 밝혔으며 마찬가지로 생물무기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바야흐로 많은 나라가 생화학무기를 혐오하며, 사용은 물론이고 보유만 해도 국제적인 불명예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고해졌습니다. 가장 비인도적 무기인 핵무기도 이와 같은 인식이 정착할 수 있게 뚜렷한 규범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멕시코에서 열린 유엔홍보국 비정부기구(NGO) 연차회의에는 SGI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핵무기는 도의에 위배되고, 어떤 군사적인 가치도 부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듯이,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마이너스적인 가치밖에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생화학무기가 전면금지에 이른 경위가 말해주듯이, 핵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쐐기를 박으려면 먼저 ‘사용금지’에 관한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반세기 이전(1957년 9월)에 스승이신 도다 제2대 회장이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해, 핵무기는 절대악(絶對惡)이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사용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유엔총회에서도 핵무기 사용은 인류와 문명에 대한 범죄로 간주한다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지금까지 같은 취지로 결의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규범으로서 확립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6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핵무기 사용과 위협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냈을 때, 국제인도법 원칙과 규칙에 일반적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하면서도 ‘국가의 존망이 위기에 직면해 자국방위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는 한, 핵 사용을 정당화할 여지가 계속 남아 있는 만큼 명확한 규범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국제법이 보편화

앞에서 언급한 권고적 의견을 다루는 심리에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

도 위법이다.”라고, 판사로서 개별적인 의견을 첨부한 크리스토퍼 위라만트리 씨(국제반핵법률가협회 회장)는 《국제법의 보편화》라는 저서에서 ‘법적 신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중의 소리를 반영하는 일이 국제법의 보편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둘러싼 역사를 돌아봐도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지도자들의 마음에서 갈등이나 자제심이 생기고 그리고 핵무기가 초래하는 비극을 두번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국제여론도 고조되어 교착상태가 하나하나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핵전쟁으로 치달을 뻔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양보해 1963년에 처음으로 핵개발을 제한하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1901~1994) 등 과학자를 비롯한 시민운동이 고조되었을 때였습니다.

또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을 배경으로 미소정상회담을 거듭하고 처음으로 핵군축을 합의한 ‘중거리핵전력협정’이 1987년에 체결되었을 때도, 1980년대에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미사일 배치 반대운동이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핵무기가 일반무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결코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이고, 조금이라도 위협을 없애야 한다는 의식이 국제사회에서 미미하게나마 착실하게 하나하나 축적된 결과,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아무리 차이가 나도 전혀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중이 연대해 그 괴리를 메우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이나 집속탄금지조약도 그런 연대를 토대로 실현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제언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비롯해 종교계와 정신계 그리고 세계의 많은 대학과 학술기관 등이 공동으로 다양한 유엔 기구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가칭 ‘핵무기 폐절을 바라는 세계의 민중선언’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언에서는 그 운동의 일환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과 위협을 전쟁범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2015년을 1차 목표로 정해 ‘핵무기 금지’를 인류의 공통적인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 규범을 확립해 많은 피폭자의 비원이자 세계 민중이 바라는 핵폐절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을 가슴에 품고, 청년의 힘으로 핵 시대에 종지부를!

### 핵무기금지조약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

당초 각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핵무기 사용을 전쟁범죄로 분류하도록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보류된 경위가 있기에, 저도 규정이 채택된 이듬해인 1999년 제언에서 규정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8차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에서 멕시코가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워킹그룹(작업반)을 설치해서 기타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하겠지요.

그리고 토의에는 국제형사재판소 비가맹국들, 그중에서 특히 핵보유국이 참관인으로 참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핵무기의 위협과 비인도성을 더욱 진지하게 마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규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핵무기 사용을 전쟁범죄로서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핵무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범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SGI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도다 제2대 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을 원점으로 핵무기의 위협과 비인도성을 강조하며 핵폐절을 주장하는 활동을 거듭했습니다.

그 실적을 근거로 '원수폭금지선언' 발표 50주년을 맞은 2007년부터는 '핵무기 폐절을 위한 민중운동 10개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국제핵전쟁방지의사협회(IPPNW)가 추진하는 핵무기폐절국제캠페인(ICAN)에 협력하며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정하려는 운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을 전쟁범죄로 분류하는 일은 틀림없이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정하도록 시운을 고양하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참가학회는 연초부터 청년부를 중심으로 풀뿌리 대화로 다음 세대를 짚어질 젊은 세대의 의식을 계발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정하기 바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5월에 열릴 NPT 재검토회의에 맞춰 유엔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현실에 휩쓸리지 않으며 위대한 이상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데에 청년이 청년다운 증표가 있습니다. 핵무기 금지를 실현하는 열쇠가 압도적인 민중의 의사를 명시하는 데에 있다면, 청년의 연대가 바로 시대를 변혁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SGI는 22개국 50개가 넘는 도시에서 실시한 '핵무기 폐절을 위한 도전과 인간정신의 변혁전' 개최에 주력하고, 5개국어로 제작한 '평화의 염원을 담아-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여성들의 피폭체험'이라는 DVD를 교육자료로 상영하며, 스승의 유훈을 이루기 위해 '핵무기 금지를 위한 민중의 포위망'을 겹겹이 두르며 더욱 견고히 할 생각합니다.

### 안보리정상회담 정례화로 핵군축을

제3단계 도전은 유엔헌장을 기반으로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연계해 핵무기 전폐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제1단계 전략무기감축협상 실효(失效)에 따른 새로운 핵군축조약 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축해도 세계에는 아직 핵탄두가 대량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핵무기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미국과 러시아 양국뿐 아니라 모든 핵보유국을 대상으로 핵군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서 모든 대상국, 즉 핵보유국이 가맹한 유엔헌장을 기초로 핵폐절을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기를 주장합니다.

유엔헌장 제11조에는, 유엔총회는 군비축소와 군비규제를 통제하는 원칙을 심의하고, 이 원칙과 관련해 가맹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6조는 군비로 전용(轉用)되는 세계의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총회가 제11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군축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에 비해, 안보리는 충분한 역할을 완수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제26조는 계속 휴면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주제로 정상회의를 열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구축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핵보유 5개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결의를 실행에 옮겨야 하며, 안보리는 앞으로도 유엔사무총장이 참석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다국 간 핵군축을 교섭하는 장으로 삼아 책임지고 핵폐절을 위한 궤도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유엔총회 활동도 지금까지 핵을 폐절하기 위해 결의한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제안국 등 협상국들이 긴장완화와 군축을 추진한 내용을 부대 사항으로 집약해서 밝히고, 도의적인 힘으로 핵보유국이 해마다 일정비율로 핵군축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면 어떨까요.

물론 핵폐절을 완수해야 할 책임은 핵보유국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완결될지 모르는 핵무기 감축교섭이 진전되기를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핵비보유국이 직접 행동하는 위력을 보이며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면 핵폐절로 가는 등정(登頂)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는 곧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핵군축을 현실적으로 추구하려면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핵군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생각을 배경으로 새롭게 거듭 결의하는 속에, 각국이 의욕적으로 위협을 감축하는 움직임이 정착된다면, 헌장 제26조에 의거한 군비규제를 요구하는 코스타리카의 주장처럼 ‘사회 지출(支出)의 우선순위를 비롯해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포함하는 국제적인 개발목표와 경합해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혐오스러운 군비경쟁의 기운에서 빠져 나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는 각국이 일치단결해 빈곤과 환경문제 등 ‘인류의 공동과제’와 씨름해야 하는데도, 해결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희생하면서까지 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는 지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인류공통의 위협’을 낳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군축문제의 권위자인 퍼그워시회의 자안타 다나팔라 회장과 몬터레이국제대학원 비확산연구소 패트리샤 루이스 부소장은 대량살상무기든 소형무기든 군축은 가장 먼저 ‘인간의 안전보장’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한 일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군축을 정당한 지위, 즉 인간중심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고의 핵심에 놓아야 한다. 군축은 인도적 활동이다.”

저는 ‘군축은 인도적 활동’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유엔헌장 제26조를 활성화해서 ‘핵폐절과 세계탈군사화’라는 조류를 착실히 강화하기를 주장합니다.

일본은 피폭국으로서 지난 십수년간 핵폐절을 지향하는 유엔총회 결의 제안국으로서 비핵 3원칙과 무기수출 3원칙을 내걸었는데, 두 원칙을 굳게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선두 주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일본과 미국 간에 “핵무기 전폐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올 한 해를 시작으로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쓰며 핵폐절을 위한 과정을 마련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 경제위기로 깊어진 ‘인간존엄’ 위기를 각국이 연계해 고용 회복과 개선에 온 힘을

### 지구사회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은 경제위기로 더욱 뚜렷이 드러난, 인간존엄을 위협하는 ‘지구사회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에 관해 논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고, 세계적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받은 타격이 크므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제위기가 각지에서 새로운 인도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위기와 위협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존엄을 지키고 ‘인간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구축하려면 국제적인 안전책 정비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임파워먼트(능력개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춰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세계고용협약’을 바탕으로 각국이 실업대책과 청년층 고용개선에 힘쓰고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고용환경 안정화를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흐름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실업자 수는 기록사상 최악의 수치인 2억 19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방대한 수도 물론이지만 중요한 점은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참상이 숨어 있는지에 눈을 돌려 정치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에 퍼지는 불안과 빈곤의 어둠이 걷힐 때까지 계속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사회인으로서 출발선에 선 시기부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충격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심해져, 급기야는 삶에 대한 희망조차 잃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이 있어도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생활을 해야만 하거나,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인생설계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태는 '인간존엄'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일입니다.

ILO는 이 점에 관해 "노동은 상품이 아니고 일은 존엄의 근원이어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디센트 워크(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인간다운 일)를"이라고 제창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 "우리는 세계경제가 완전히 건전한 상태를 회복하고, 전 세계의 근면한 가정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인간다운 일'을 찾을 때까지는 쉴 수 없다."라는 구절을 정상성명에 명기했습니다.

대공황이 불러 일으킨 불황의 폭풍에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사회가 혼미를 거듭한 1929년의 비극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ILO가 경고하듯이, 각국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도입한 지원조치에서 조기에 손을 떼다면 고용정세 회복이 수년은 늦어지고, 막 회복하기 시작한 경기도 취약하고 불완전해질 우려가 있기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각국이 연계해 고용정책에 중점을 둔 대책을 계속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연대의 토대가 바로 '세계고용협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G20 산하에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인간다운 일'과 '세계고용협약'을 추진하는 테스크포스(전문담당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G20 노동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담당반을 설치해 G20이 세계 고용을 회복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위기에서 멀어졌다고 실감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수단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여아교육 확충을 돌파구로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추진

### 특별정상회의에서 체제를 재정비

둘째, 달성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UN의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여아교육 확충을 축으로 삼아 순조롭게 진행시키자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쳐 빈곤에 대한 투쟁을 정체시켰을 뿐 아니라, 그 갈림길에 선 사람들까지도 새롭게 빈곤에 빠트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목표달성 기간이 불과 5년 후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2015년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는데,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앞으로 더한층 필요합니다.

9월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관한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협력체제를 다시 세우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존엄을 빛내며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향해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아교육의 확충’을 돌파구로 사태 개선을 종합적으로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엄 개발목표’에는 빈곤과 기아에 대처하는 방안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 여성과 관련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는 기세를 되찾고 가속시키려면 남녀평등과 여성의 능력개화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초등교육을 마칠 경우, 자녀가 다섯살 이상 생존할 확률이 두배로 늘어나는 등 자녀의 영양상태나 학교에 등교하는 비율도 개선되는 경향이 보이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빈곤’을 종식시키는 큰 힘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또 오랜 기간 여아교육에 힘쓴 나라들은 확실히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 여아가 교육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면, 본인과 가족은 물론 그 여아가 장래 낳을 자녀의 미래도 밝아지며 이윽고 사회 전체에 희망의 광명을 넓히게 됩니다. 교육은 그런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주도하는 ‘유엔여아교육 이니셔티브’ 등의 활약으로 초등교육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는데, 2015년까지 더욱 기세를 몰아서 많은 여성이 중등교육 이상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발도상국의 채무를 일부 면제한 몫을 그 나라 여아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충당하는 ‘여성을 위한 미래기금’을 국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각종 위협에 번롱된 여성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들이 위기를 타개하는 주체자로 일어나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능력개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마키구치 창가학회 초대 회장도 “여성이 바로 미래 이상사회의 건설자”라는 신념으로 여성의 지위가 현저하게 낮았던 100년 전의 일본에서 여아교육 보급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을 실시하는 조직을 설립해 교재를 마련하고 기관지를 편집했습니다.

또 학비가 충분하지 않은 여성들을 위해 당시 일본의 여아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던 재봉과 자수 등을 무료로 가르치는 시설을 개설하는 데 힘썼습니다.

저도 그 정신을 계승해 소카대학교에 통신교육부를 설치하고 소카여자단기대학을 창립했습니다.

### 1325호 결의를 채택한 지 10주년

그리고 SGI는 여성이 주역이 되어 세계에서 평화운동을 추진했는데, 일본에서는 평화학자 엘리스 볼딩 박사의 감수를 받아 제작한 ‘평화문화와 여성전’을 비롯해 지역계발의 장으로서 ‘평화문화포럼’ 등을 개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담긴 篤(≡)봉?바로 피스 메이커(평화 창조자)鸞(=)메시지는 마키구치 회장의 신념을 현대에 소생시킨 것이며, 아울러 200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1325호 결의(決議)<sup>6</sup>에 담긴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결의를 실현하는 데 힘쓴 안와를 초두리 씨(전 유엔사무차장)와 의견을 교환했는데, 결의에 담긴 가장 큰 의의는 유엔이 21세기 개막을 앞두고 “여성이 관여하지 않으면 영속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이념을 세계에 발신했다는 점입니다.

초두리 씨도 결의를 근거로 “여성이 관여함으로써 ‘평화문화’는 더욱 단단히 뿌리를 뽐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 <sup>6</sup> 1325호 결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00년 10월,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분쟁해결과 평화유지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처음으로 채택한 획기적인 결의이다. 여성 범죄에 대한 소추(訴追), 분쟁 상태에서 여성과 여아 보호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평화와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가해 전면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때마침 지난해 9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여성 관련 문제를 다루는 조직 네 곳(유엔여성개발기금, 여성지위향상부, 여성특별보좌관실, 국제여성연구훈련원)을 통합해 남녀평등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고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도록 개혁하자고 의결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구의 발족에 즈음해, 여아교육 확충을 포함한 '여성의 능력개화' 추진과 함께 안보리 1325호 결의를 추적 조사하는 작업을 중심 활동에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평화 협상 과정에 참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유엔평화구축위원회가 부룬디와 시에라리온의 부흥을 추진하면서 결의를 중시하는 움직임이 보인 한편, 세계 전체적으로는 평화협정 서명자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퍼센트 이하이고, 교섭자는 7퍼센트에 불과해 아직까지 결의에 담긴 정신을 본격적으로 침투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제4회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정책의 국제기준이 되는 '베이징 행동강령'을 채택한 지 15주년이 되며, 안보리 1325호 결의를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가절을 맞이합니다.

올해를 더욱 비약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능력개화'가 활기차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1325호에 관한 특별그룹(Ad hoc Group)'의 연대를 넓히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 여성이 더욱 본격적으로 관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토의해 현상을 타개하기 바랍니다.

## 학교를 중심으로 '인간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어린이를 평화문화의 기수로

### 위기의 여파를 받는 대상은 어린이

셋째, 어린이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고 '평화와 공생의 21세기'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언입니다.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면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어린이가 그 여파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이번 경제위기에도 각국의 경기가 침체되어 국가 재정과 가계가 절박해지면서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거나 만족스러운 보건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하거나 하는 어린이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갖가지 위협에서 어린이를 지키는 지붕 즉 '인간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중

심기관으로 삼는 한편, 어린이를 '평화문화'의 기수로 육성하는 장소로 구축했으면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1995년부터 건강을 증진하는 중심기관으로서 학교를 중시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활동은 WHO를 비롯해 유니세프 그리고 유네스코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레쉬(FRESH)'라는 프로그램에도 계승되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수련하는 교육과 영양가 있는 식사제공 등을 위주로 하는 학습환경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계식량계획'이 오랜 세월 동안 추진한 학교급식 배급은 어린이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안전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니세프에서는 '아동친화적학교'를 제창하며 지진과 태풍에 강한 학교구축을 지원하고, 위기 때는 학교가 어린이에게 일상성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엔의 여러 기구가 학교를 중심기관으로 추진한 활동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인간의 안전보장과 평화문화를 위해 학교를 중심기관으로 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몇 해 사이에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변혁의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능력을 개화하자는 움직임이 중시되었는데, 그런 움직임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 인류가 되풀이하는 비극의 역사를 전환하려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부터 시대혁명의 물결을 일으키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린이를 위한 평화문화와 비폭력의 국제 10개년'은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에 이어 학교를 중심기관으로 삼아 '평화문화'를 전 지구에 확대하는 활동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1999년 유엔에서 채택한 '평화문화에 관한 행동계획'에서는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다음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가 어린 시절부터 인간존엄을 존중하는 정신, 관용과 무차별의 정신으로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치관의 형성, 태도, 행동양식 및 삶의 자세를 습득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 **‘어린이의 행복’을 모든 출발점으로**

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나 가정 등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폭력적 수단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래 어린이가 성장해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 ‘평화문화’가 사회에 뿌리내리는 흐름을 만드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평화문화’의 저변을 널리 확대하려면 유엔과 정부의 대처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가치관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이라는 차원에서 ‘평화문화’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끈기 있게 의식계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SGI는 마키구치 초대 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생각하는 출발점으로 ‘어린이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89년에 어린이 권리조약 채택을 계기로 ‘세계 어린이와 유니세프전’과 ‘어린이 인권전’을 일본에서 순회전시했으며, 1996년부터는 미국 각지에서 ‘어린이의 권리와 현실전’을 열었습니다.

또 국제 10개년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2004년부터 ‘세계 어린이를 위한 평화문화 건설전’을 각국에서 개최하고 2006년부터는 일본 각지에서 ‘평화문화와 어린이전’을 순회전시했습니다.

우리 SGI는 앞으로도 ‘어린이는 미래에서 온 사자(使者)이고 인류의 보배다. 어린이의 가슴에 용기와 희망을 점화하는 일이 세계평화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기반으로 ‘어린이를 제일’로 여기는 세계를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 **학회 창립 80주년, SGI 발족 35주년, 역사를 창조하는 민중의 대연대를**

### **전례 없는 변화를 역사에 새기는 도전**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 박사(1889~1975)가 이렇게 강조한 일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풀이해야 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에게서 자기 노력으로 우리 시대와 역사

에 새롭고도 전례가 없는 변화를 부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창가학회는 올해로 창립 80주년, SGI 발족 35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창가학회의 걸음도 역시 시대의 격류에 휩쓸리지 않고 민중의 손으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도전을 거듭한 역사였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시대의 어둠이 깊을수록 혼미한 어둠을 떨쳐버리는 한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고 각자 지역에서 깊이 뿌리내리며 세계 192개국에서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자타(自他)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공헌적인 생활’을 주장한 마키구치 초대 회장의 정신과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고 주장한 도다 제2대 회장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일대일 대화를 통한 인간생명의 촉발을 근본으로 삼아 세계민중의 힘으로 ‘평화와 인도주의의 큰 연대’를 힘차게 구축하고 싶습니다.

## 역주

1. 국내에서는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바 있다. 원서명은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이다.
2. 원서명은 ‘Staying Human in an Engineered Age’이다.

## 참고문헌

1. ‘오바마 연설집’, 미우라 도시야키 옮김, 이와나미서점
2. ‘진정한 독립을 위한 길’, 다나카 도시오 옮김, 이와나미서점
3. ‘경제환상’, 히라노 야스로 옮김, 후지와라서점
4. ‘과학자가 묻는다 내세는 있는가’, 진분쇼인
5.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오쓰카 히사오 옮김, 이와나미서점
6. ‘지구평화를 위한 탐구’, 우시오출판사
7. ‘시몬 베유 저작집Ⅱ’, 하시모토 이치메이 외 옮김, 숲주사



8. ‘아인슈타인, 신을 말한다’, 윌리엄 헤르만스 저/사이카 노리히코 옮김, 고사쿠샤
9. ‘21세기를 여는 대화’,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3권’ 수록
10. <니혼케이자이신문> 2009년 10월 29일자
11. ‘니체 전집 제4권’, 오구라 유키요시 옮김, 리소사
12. ‘마르셀 저작집6’, 고지마 다케히코 외 옮김, 순주사
13. ‘대중의 반역’, 간키 케이조 옮김, 지쿠마쇼보
14. ‘청년의 보’,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39권’ 수록
15. ‘레미제라블’, 도요시마 요시오 옮김, 이와나미서점
16. ‘20세기 정신의 교훈’,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105권’ 수록
17.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5권’, 다이산분메이사
18. ‘도다 조세이 전집 제3권’
19. ‘케네디대통령연설집’, 하세가와 기요시 역주, 난운도
20. 피스 디포(Pease Depot) ‘핵무기· 핵실험모니터’ 제318호
21. ‘군축국제법’, 구로사와 미쓰루 저, 신간샤숫판
22. 연재대담 ‘새로운 지구사회의 창조로’, ‘우시오’ 2009년 6월호 수록
23. ‘폭력문화를 평화문화로’, 평화문화를 구축하는 모임 편
24. ‘시련에 처한 문명’, 후카세 모토히로 옮김, 샤키이시소사